



# I. 연구 계획서

## 1. 연구의 필요성

### 한반도 통일전략의 ‘네트워크 발상’?

‘네트워크(network)’는 최근 학계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국제정치학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부상이다. 기존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태생적으로 네트워크적인 형태의 행위자들이 새로이 세계정치의 장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힘을 얻고 있으며, 아울러 근대 국제정치를 주도해온 국민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전략의 추진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하여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탐구하는 새로운 발상과 구체적인 연구의 경로를 제시하려는 선구적 시도이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일(統一, reunification)이라는 용어는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라고 하는 ‘노드(node) 차원의 발상’이 낳은 소산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이란 다름 아니라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민족이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통일(統一)’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지난 백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노드 차원에서 제기되는 목표인 것은 맞지만, 그 목표가 노드 차원의 발상만으로는 풀 수 없는 ‘탈(脫)노드 차원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통일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네트워크 차원의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남북한 국내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평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시도 중의 하나는 아마도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는 소위 ‘6자회담’일 것이다. 남북한과 주변4강(強)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외교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간 네트워크(inter-governmental network)’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양자외교가 확대된 형태를 띠는 6자회담을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6자회담과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근대 국제정치에서 수시로 발견되는, 기본적으로 노드 차원의 발상에 기반을 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근대 국제정치에서 비롯된 노드 차원의 발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를 풀어가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소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이다.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제40기 졸업식에서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다.<sup>1)</sup> 19세기 후반 근대 국제정치와의 만남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통적인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

1)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2005년 2월 1일-2006년 1월 31일』 (대통령비서실, 2006), p.98.

의 마인드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의 관념에 입각해서 2차원적 발상으로 문제를 보는 동북아 균형자론만으로는 벌써 안과 밖이 복합적으로 얽힌 네트워크 게임으로서의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풀어낼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변환의 시대를 헤쳐 나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차원의 저울에서 물질적 권력의 경중(輕重)이나 강약(強弱)을 재는 균형자의 발상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다. 다시 말해 2차원적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oP)의 발상'을 넘어서는 3차원적인 '세력망(勢力網, network or power, NoP)의 발상'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NoP의 발상'은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관계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문제를 본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상이 상정하고 있는 권력관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질적 권력의 개념만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과 문화, 그리고 이념과 같은 비(非)물질적 권력자원에 주목한다. 소위 '하드파워(hard power)'를 넘어서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부상이 네트워크 발상의 전제이다. 또한 네트워크 발상이 보는 권력 게임은 노드(node)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속성이나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와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보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을 소위 '주변4강(強)'으로 개념화하는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설 것을 요구받는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4강(強)'의 '강(強)'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물질적 권력의 강약(強弱)을 전제로 형성된 관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4강'의 시각에서 보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남북한은 그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거론되는 한국도 '4강'의 게임에서는 항상 뒷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몸집을 불려도 '4강'의 시소게임에서 우리가 그 균형의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노정한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변환의 와중에 있는 주변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효성 있는 대외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4강'과 '균형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발상이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발상으로 개념화되는 주변의 네 나라는 네 개의 네트워크, 즉 '4망(網)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는 이러한 4망(網)의 네 나라가 주도하여 엮여가고 있는 다층적 네트워크의 세계정치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발상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도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그리고 일본)과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국가전략의 방향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전통인 친미(親美) 일변도의 외교 전략으로부터 중국이라는 변수를 끌어 들여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21세기적인 네트워크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그리고 일본)과 잠재적인(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네트워크 '대국(大國)'인 중국의 사이에서 19세기적인 균형자의 발상은 설자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추구할 국가전략의 방향은 19세기적인 균형자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경합하는 네트워크의 사이에서 일종의 '스위치(switcher)'와도 같은 역할인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변정세의 변화는 단편적인 균형자의 발상으로 풀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다층적인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통적인 행위자인 국민국가의 대외전략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형태와 구조 및 내용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이다. 본 연구에서

소재로 선정한 군사안보, 정치경제, 에너지·자원, 인권·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4망(網)’의 네트워크 전략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행위자를 비롯하여 다국적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도시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들이다. 게다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복합네트워크의 게임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글로벌, 지역, 국가, 지방 등의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층적 변환의 응축된 형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전략의 방향은 ‘하나로 합치는 통일(統一)’의 전략이기보다는 ‘모든 곳으로 통하는 전통(全通)’의 전략, 즉 다층적인 네트워크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남북한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된 ‘노드형의 통일 전략’이나 국가 행위자들의 군사안보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하드파워의 평화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환의 세계정치 환경에서 남북한과 더불어 주변4망(網)을 고려하고, 군사안보 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에도 주목하는 네트워크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사례로서 ‘21세기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주변4망(網)이 벌이는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본질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네트워크 국가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밑거름으로 해야만, 한반도 통일 연구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본 연구팀이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서 구상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일 전략’에 대한 탐구가 사상누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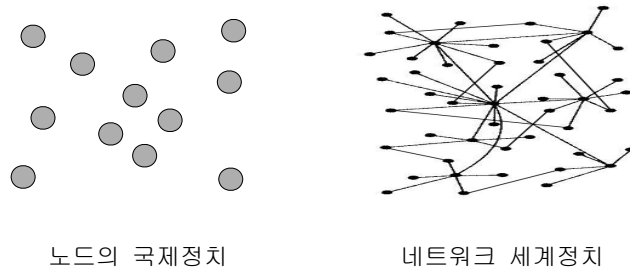
### **왜 네트워크에 주목하는가?**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거론하고 있는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지금의 시점에서 왜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하며, 그러한 네트워크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다르게 보이는가? 네트워크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약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이다(Castells, 2004, p.3).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링크(link)라고 하고, 이러한 링크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노드가 형성된다. 노드와 링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 학맥, 혈맥에서부터 교통망, 방송망, 통신망이나 상품의 판매망과 종교의 포교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정치군사 동맹이나 국제무역,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도 모두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빌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마당에 어떠한 형태로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노드가 존재하고 이러한 노드들을 링크로 연결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네트워크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네트워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부상이다. 다시 말해, 보통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라기보다는 고유명사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라고나 할까?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노드와 노드가 링크로 연결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연결된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이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네트워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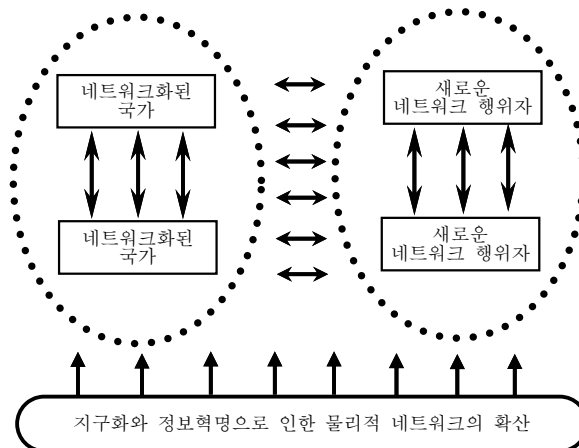


<그림-2> 노드의 국제정치 vs. 네트워크 세계정치



본 연구에서 탐구할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상은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다. 먼저, 네트워크 세계정치 현상의 저변에는,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확산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물리적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과 같이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선과 무선의 인터넷이 보급된 환경을 언급하지 않고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의 부상을 논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지구 어느 곳이나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사람과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호 교감과 행동의 공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세계정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3>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구도



그러나 전 세계에 걸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지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세계정치의 네트워크가 물리적 네트워크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미치는 소위 ‘전방위형(all-channel)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네트워크 세계정치는 오히려 지구적(global), 지역적(regional), 국내적(national), 국지적(local) 층위에서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기 다른 허브(hub)를 이루어 엮어내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경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의 경합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첫째, 기존의 국가들이 만드는 네트워크들 간의 경합이다. 국제정치의 대표적 노드인 국민국가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이전에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외교나 동맹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국민국가가 그 안과 밖으로 변환을 겪으면서 소위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로 개념화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요컨

대, 국민국가들끼리의 네트워크 경쟁인 동시에 네트워크화된 국가들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 둘째, 다국적 기업이나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등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만드는 네트워크들 간의 경합이다.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비(非)국가 행위자들은 태생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되고 작동한다. 최근 지구화의 확산이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부상으로 개념화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모습이다.
- 끝으로, 국가를 허브로 하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허브로 하는 네트워크들 간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네트워크 진영 간의 경합’이다. 이러한 경합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비전을 향해서 벌이는 경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노드 간의 정치’와 새롭게 부상하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inter-network politics)’가 벌이는 비전의 경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간의 정치’를 부르는 용어로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의미로 조어(造語)해 보는, ‘망제정치(網際政治)’일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망제정치라는 생소한 말을 대신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the world politics of network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sup>2)</sup>

## 2. 연구의 개요

### 가. 연구목적

이상에서 간략히 개념화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환경의 변화를 대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을 도입하여,<sup>3)</sup> 한반도 통일과 평화 연구를 위한 전 단계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이라는 환경에서 주변4망(網)의 국가전략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임은 물론이다. 부연컨대,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한반도 통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편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소위 ‘네트워

2) ‘네트워크 세계정치’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트워크’라는 말에 대해서는 프로포벌의 본문에서 상술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世界, world)’라는 말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밝혀 보겠다. ‘세계’라는 표현은 원래 불교의 시간개념인 ‘世’와 공간개념인 ‘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world’란 영어 단어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world’란 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특히 근대 국제정치의 자기모순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정치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국제정치’와 엄연히 구별된다. 한편 국제(國際)라는 표현은 영국의 벤담(Jeremy Bentham)이 1789년 처음 사용한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의 미스쿠리 린쇼(箕作麟祥)가 1873년에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서 사용하던 만국공법 대신에 국제법으로 번역함으로써 국제라는 용어를 동아시아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하영선, 2007, p.19).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계정치는 국제로 나뉘지 않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정치단위로 보는 ‘지구정치(global politics)’와도 구별된다. 오히려 국제정치나 지구정치를 세계정치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정치란 지구정치뿐만 아니라 지역정치(regional politics)와 국지정치(local politics)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세계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초국가 및 하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정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와 결합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네트워크이론에 대해서 본 프로포벌의 국내외 연구현황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음.

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과 더불어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특히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국제정치학의 사례연구에 적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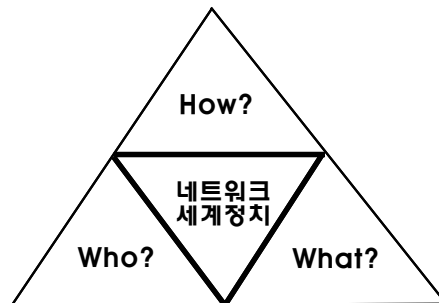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고찰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4망(網) 국가들의 국가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로서 본격적인 '네트워크 통일론'의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a)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 b) 주변4망(網) 연구, 그리고 c) 본격적인 네트워크 통일론의 연구로 이어지는 3단계 연구 프로젝트의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와 주변4망(網) 연구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겠다.

### 네트워크 세계정치란 무엇인가?

노드의 시각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을 포착하는 데 더디게 반응하고 있다. 현실은 네트워크시대가 도래했다고 떠들썩한데 국제정치이론은 여전히 노드 차원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니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 역시 네트워크의 시각을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노드가 아닌 네트워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탐구해야 할까? 도대체 네트워크 세계정치란 무엇인가?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그림-4> 참조).

<그림-4> 네트워크 세계정치란 무엇인가?



- 첫째,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how)' 출현하는가?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가 부상하게 되는 동인(動因, driving forces)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대표적 노드인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정치에 도전하는가?
- 둘째, '누가(who)'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득세(得勢)하는가? 네트워크 세력의 새로운 출현으로 인하여 세계정치의 권력분포(distribution of power)는 어떠한 변화를 겪는가? 어떠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지니는 네트워크가 이러한 경합에서 유리한가?
- 끝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으로 인하여 '어떠한(what)' 모습의 세계질서(world order)가 출현하는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분석단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조직원리(organizing principle)에 의해서 구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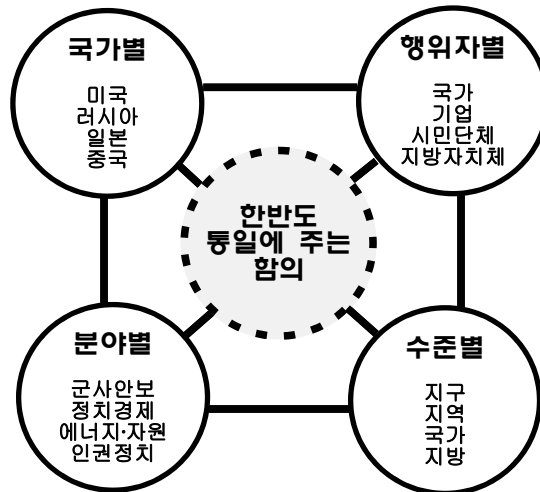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의 성과를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벌이고

자 한다. 네트워크의 개념에서부터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과정(process)과 구조(structure) 및 체제(system)의 모습을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개념들과 대비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21세기 세계정치를 본다면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네트워크 세계정치는 노드의 국제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까? 본 연구가 이론적 시도와 더불어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궁금증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주는  
주변4망(網)의 국가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을 탐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 가지의 분석틀이다. 본 연구의 제2부에서 선정된 4개의 사례는 이러한 네 가지 분석틀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림-5>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사례 선정의 구도



- 첫째,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의 네 나라(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네트워크 전략을 다룰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 전략과 그 세계정치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네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에 대처하는 한반도 통일전략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4망(網)의 네트워크 전략을 다룰 것이다. 기존에 군사안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시각을 넘어서 정치경제와 에너지·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정치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를 탐색할 것이다.
-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다룰 것이다. 기존의 국가 행위자 중심의 발상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이나 지구 시민사회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의 세계정치를 탐구할 것이다. 남북한이라는 국가/민족의 수준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수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지구 수준과 각국의 지방 수준에서 진행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살필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분석틀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수행할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

4망(網)의 국가전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해,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 전략분석, 다양한 분야의 이수별 연계분석,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결망 분석, 그리고 각 분석수준별 다층분석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이 한반도 통일전략에 주는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 나. 연구구성

이상에서 언급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변4망(網)이 펼쳐고 있는 국가전략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 연구의 기본골격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6>과 같다.

<그림-6> 연구의 구성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4망(網)의 국가전략: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제1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해	
과제1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한반도 통일연구에 주는 함의
과제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무기이전의 사회연결망분석(SNA) 사례
<제2부> 주변4망(網)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과제3	네트워크이론의 시각에서 본 9.11 이후 미국의 반(反)테러 동맹전략
과제4	21세기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5	지구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그리고 일본의 네트워크 경제전략
과제6	중국의 인권문제와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북한 탈북자 문제에 주는 함의

## 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각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적합한 연구의 방법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현지조사 및 계량데이터 분석 방법을 주로 취할 것이다.

-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공식 문건, 학계의 연구논문, 그리고 인터넷 상의 자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구독하는 국내외 주요 신문과 잡지, 학술서적,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둘째, 이외에 문헌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없는 구체적인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비공식 자료 등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특히 미국에서의 현지 조사는 인터뷰와 함께 문헌조사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

- 끝으로, 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나 통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제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본 연구는 월례세미나, 공개발표회, 학술지 게재 또는 편집 단행본 등의 형태로 진행 중인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벌일 것이다.

- 우선,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책임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모임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월례 세미나를 통해 참여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 진척 상황을 중간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보고서 단계에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최종 보고 이전에 학계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이다.
- 셋째, 연구결과는 선별하여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논문 전체를 편집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이 수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 라. 연구내용: 예상목차에 따른 세부과제별 프로포절

### 과제 1: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한반도 통일연구에 주는 함의

- 네트워크이론의 원용: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출현하는가?
- ‘누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득세하는가?
- ‘어떠한 모습’의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출현하는가?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 한반도 통일연구에 주는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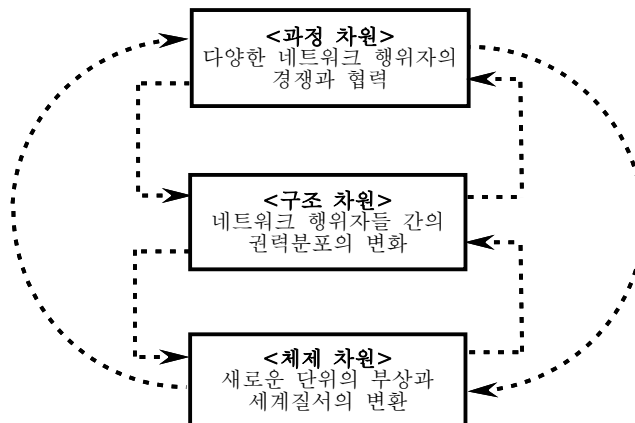
#### a. 문제제기

글자 그대로 국제정치학은 ‘국(國, nation) 사이(際, inter)의 정치(政治, politics)’,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최근 현실의 변화는 이렇게 국가를 주요 ‘노드(node)’로 설정하고 그들 간의 ‘링크(link)’에 주목하는 평면적 발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국가 노드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초국가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노드 자체도 그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화되는 변모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전통적인 국제정치와 새로운 세계정치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제정치학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현상을 전통적인 노드의 시각으로만 보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의 성과를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the world politics of networks)’의 부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벌이고자 한다. 네트워크의 개념에서부터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과정(process)과 구조(structure) 및 체제(system)의 모습을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개념들과 대비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21세기 세계정치를 본다면 무엇이 달리 보일까? 네트워크 세계정치는 노드의 국제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까? 본 연구가 이론적 시도와 더불어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궁금증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국가의 변환과 새로운 행위자의 도전으로 대변되는 최근 세계정치 변화의 각 단면들을 안보, 정치, 외교, 생산, 금융, 무역, 환경, 인권, 여성, 종교 등의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시도는 21세기 세계질서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시론(試論)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본 연구는 과정과 구조 및 체제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 즉 i)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출현하는가? ii) ‘누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득세하는가? iii) ‘어떠한 모습’의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출현하는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는 것과 동시에 이들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경험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논문에서 제시될 것이지만 총론적인 차원에서 가설을 제시해보면,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요약될 수 있다.

<그림-7>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동학



첫째,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how)’ 출현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부상하게 되는 동인(動因, driving forces)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은 a) 정보기술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지식의 변환, b)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변환, c)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대변되는 행위자의 변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론적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을 탐구하는 작업의 관건은 “지식-->권력-->행위자”로 이어지는 삼중 고리의 상관관계를 인과적으로 또는 구성적으로 밝혀내는 일이다. 실제로 정보혁명을 통한 지식 변수의 변환은 세계정치에서 권력의 소재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작동방식

의 변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소위 ‘상호작용능력(interaction capacity)’의 증대와 다층적 수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부상 간에는 일정 정도의 인과적 관계가 성립된다(김상배, 2001; Deibert, 1997).

둘째,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누가(who)’ 득세(得勢)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새로운 네트워크 세력의 새로운 출현으로 인하여 세계정치의 권력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합에서 어떠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지니는 네트워크가 득세하느냐의 문제는 이슈 영역마다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차원에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지식패권을 발휘하는 단 허브형의 ‘제국적 네트워크(imperial network)’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재편 시도가 이러한 단 허브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도전하는 탈 허브형의 ‘대항적 네트워크(resistant network)’이다. 특히 반미운동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부상, 그리고 다양한 지식네트워크의 확산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가 보이는 경합은 전통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 네트워크와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비국가 네트워크의 경합으로 이해될 소지도 많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정치는 기존 국가 행위자가 득세하는 완전한 ‘제국적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이 득세하는 그 반대의 완전한 ‘대항적 네트워크’도 아닌 그 중간의 복합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what)’ 모습의 세계질서가 출현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탐색이 필요한 데 그 하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분석단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구성원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아무리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더라도 여전히 세계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는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는 이전과 같은 노드형의 국민국가는 더 이상 아니다. 국민국가는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변환을 겪으면서 네트워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명명하자면,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arnoy and Castells, 2001). 네트워크 국가의 개념은 21세기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전방위형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특정 허브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되는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 경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이 경우 그 허브는 새로운 권력(즉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네트워크 국가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얽혀서 구성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모습을 띤다. 또한 이러한 국가변환의 과정에서 지식 변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네트워크 지식국가(network knowledge state)’라고 부를 수 있겠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질서에 대한 다른 하나의 질문은 네트워크 세계정치가 어떠한 조직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에 21세기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를 새로운 분석단위로서 상정할 수 있다면, 이들 네트워크 지식국가가 구성하는 체제의 모습은 무엇일까? 네트워크 국가들이 만드는 체제는 노드형의 국민국가들이 만드는 ‘단순계(simple system)’라기보다는 ‘복잡계(complex system)’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의 복잡계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상정하는 무정부상태(anarchy)는 아니다. 그렇다고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가 규범(norm)이나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society)이거나, 아니면 정체성(identity)까지도 공유하는 공동체(community)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의 조직 원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개념화할 수 있을까? 본 연구

에서는 네트워크 국가들이 형성하는 ‘복잡계’를 ‘단순계’와 ‘사회’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창발(emergence)의 과정을 겪고 있는 질서로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질서는 무정부상태(anarchy)와 위계질서(hierarchy)의 중간에 설정되는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네트워크아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현 단계에서 집중과 탈집중의 이중 복합 네트워크 형태를 떠는 ‘네트워크아키’의 내용을 엿보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은 로즈나우가 말하는 분합(分合, fragmeration = fragmentation + integration)의 세계질서이다.

### c.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 특성상 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콘텍스트 분석 및 상호텍스트(inter-text)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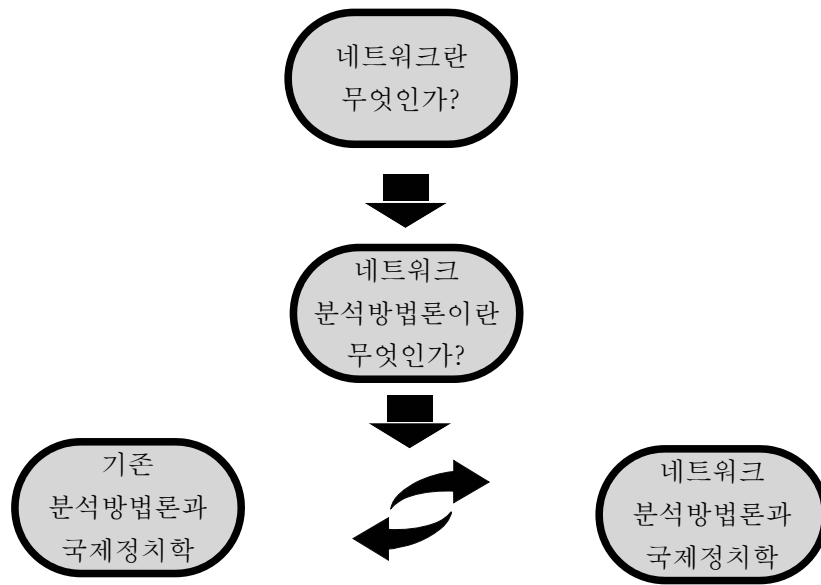
## 과제 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무기이전의 사회연결망분석(SNA) 사례

-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의 고찰)
- 기존의 분석방법론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의 비교 (국제정치학에서의 다양한 분석방법론)
- 국가 간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구조와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관한 시계열분석 (시기적인 비교, 냉전기/탈냉전기 비교를 중심으로)
- 국가 간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구조와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관한 횡단면분석 (지역적인 비교, 아시아지역/비아시아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구조와 한반도 통일전략의 관계

### a.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 방법론을 무기이전의 사회연결망 분석의 사례에 적용하여 검토하여 볼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트워크란 무엇이며,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기존의 다양한 분석방법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정치학에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분석방법들을 통해 연구된 국제정치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연구되는 국제정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말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하여 바라본 국제정치의 모습은 기존의 분석방법들을 사용한 국제정치의 모습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본 과제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과 국제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에의 적용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림 8 참조). 국가 간의 혹은 비국가구성원간의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져왔다. 이러한 아이디어 차원의 네트워크 논의와는 달리, 네트워크분석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국제정치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그 현실이다. 본 과제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 현상들에의 적용에의 시급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8> 네트워크 분석방법론과 국제정치학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무기이전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 과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 간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의 이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해낸다는 국제정치학의 네트워크연구가 최근 도래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치학에서의 핵심논의중의 하나는, 국가 간 혹은 국가이외의 구성원간의 다양한 국제정치의 장에서의 관계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국제네트워크의 연구인 것이다. 국제정치의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는 그것이 물질적 자원의 이동 관계일수 있고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군사무기의 이전, 경제원조의 이전, 무역의 이전), 혹은 국가 간의 비물질적 자원의 이동 관계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외교관들의 이동, 학생들의 이동, 전화통신의 이동) 일수도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와 그로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국제네트워크들 중의 하나인 군사무기 이전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국가 간의 군사무기의 이동은 국제정치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히, 냉전시기에) 국가의 의미 있는 정책적인 외교수단의 하나로 연구되어져 왔다 (Krause 1991; Sanjian 1989; Blanton 2000; Maniruzzaman 1992; Cutler, Despres, and Karp 1987). 이러한 외교수단으로서의 국가 간의 군사무기의 이동에 관한 연구가 최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그것의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연구되어 오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예를 들어, 킨셀라 (2006)는 국제 무기이전은 시장이 아닌 네트워크로서 이해되어야하며, 이러한 국가 간의 군사무기의 이전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는 네트워크적 구조와 중요한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Kinsella 2006). 본 과제에서는 “냉전/탈냉전기 국가의 무기이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이러한 네트워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체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간의 군사무기의 이동을 살펴볼 것이다.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은 어떠한가? 이러한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시기적으로 (특히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의 비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림 9 참조) 국제체제 전체적인 군사무기 네트워크와 더불어,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그의 시대적인 변천의 모습의 고찰 또한 본 과제의 주요연구대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전략의 변화에 대한 비교검토가 본 과제에서 또한 심도

깊이 논의될 것이다.

## b. 연구내용

대표적인 네트워크 연구학자인 프리만은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의 학문적인 발전과정을 분석한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라는 저서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들이 다음의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Freeman 2004). 첫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들에 기초한 구조에 의해 그 방법적인 동기를 부여받는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체계적인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며, 네트워크 구조의 그래픽화된 모습의 발견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주로 수학적 혹은 통계적인 모델들의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은, 현재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기초가 되었던 주요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던 1920년대의 네트워크 사상가들의 시기, sociometry로 대표되는 초기의 기초적인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을 제시하고 발전시켰던 1930년대의 네트워크 분석가들의 시기 (Jacob L. Moreno 와 W. Lloyd Warner 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암흑기로 불리어지는 1940년대/50년대/60년대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의 하버드 대학에 기반을 둔 Harrison White 와 그의 제자들로 부터 시작된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의 부활과 그의 사회현상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의 부상의 시기로 나누어진다(Freeman 2004).

이러한 공통점과 학문적 발전과정을 거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에 대한 네트워크 학자들의 방법론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발전되어 왔다 (Gould 2003). 첫째, 보다 온화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자 그룹의 주장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기존의 다른 연구방법을 통하여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보다 강경한 (종종 네트워크 제국주의자들로 지칭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자 그룹의 주장은 기존의 연구방법들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네트워크 분석방법이야말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연구방법 (the correct way of studying social phenomena) 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Gould 2003, 244).

이러한 두 철학적 분파들로 나뉘지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론적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흔히 connectivity (연결)의 연구방법으로 대표된다. 이 연결의 네트워크 연구방법은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 간의 근접성 (closeness)에 기초한 네트워크 안의 소그룹들의 발견에 그 연구방법의 목적을 삼고 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흔히 positional (위치)의 연구방법으로 대표된다. 이 위치의 네트워크 연결방법은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의 유사성 (similarity, 위치의 유사성 혹은 역할의 유사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안의 소그룹들의 발견에 그 연구방법의 목적을 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은 주로 네트워크 구조의 해석과 네트워크 안의 소그룹들의 발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세 번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세 번째 방법론은 네트워크 구조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네트워크 구성원의 사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링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의 네트워크의 모습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렇게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의 모습에 대한 해석이 그 중점에 있다. 반면에, 세 번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가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 다시 말해 노드들을 제약하는 일조의 “구조”로써의 네트워크의 모습에 대한 고찰이 그 중심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네트워크 “과정”과 “구조”로써의 네트워크 분석방법과 더불어, 네트워크 그 자체 (노드와 링크의 조합)가 행위자으로써 다시 말해 네트워크가 분석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인 “행위자”로써의 네

트위크의 모습 또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방법론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더불어,<sup>4)</sup>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이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현상들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논의해 볼 것이다. 먼저, 국제정치학에서의 기존의 네트워크 연구방법론의 적용의 사례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학의 몇 가지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제시와 함께 각 네트워크 분석방법론들의 국제정치학 연구에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의 적의성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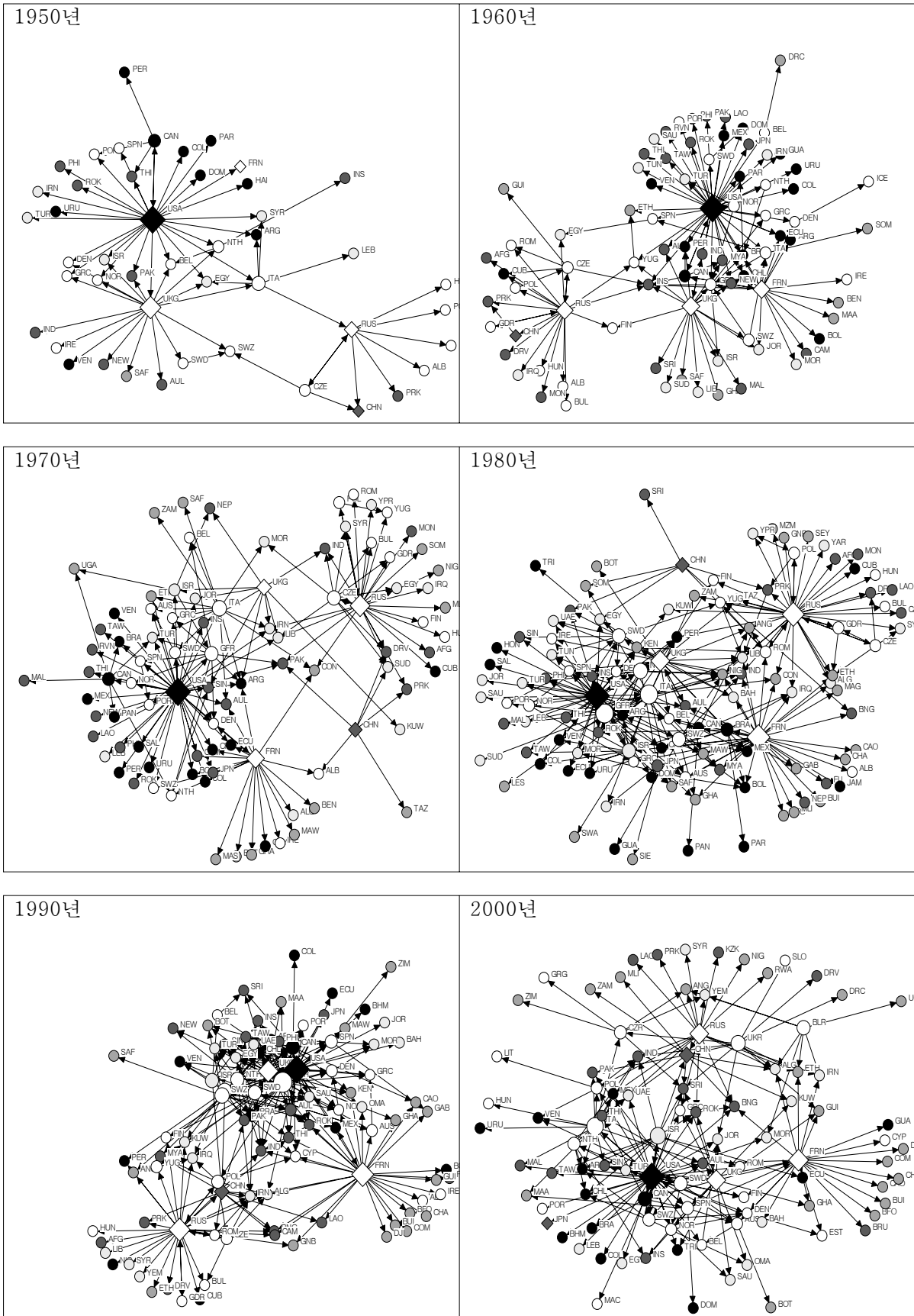
또한 국제정치학에서의 군사무기 이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반하여, 그것의 네트워크 구조로의 연구는 아직 미친한 것이 그 현실이다. 다시 말해, 두 국가 간의 무기의 이전과 그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는 달리, 전 지구적인 군사무기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국제정치학에서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앞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군사무기 이전이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를 통한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극히 최근에 와서야 몇몇 북미학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킨셀라 (2006)는 비밀시장에서의 소형무기의 암거래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무기 이전의 네트워크 연구에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한바 있다.

본 과제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정치학에서의 군사무기 이전의 네트워크로서의 연구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군사무기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50년간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에의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본 과제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는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변화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인가?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변화는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가? 둘째, 지난 50년간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그러한 행위자들의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가? 셋째, 한국이 속한 아시아 (보다 좁게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은 지난 50년간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들의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가?<sup>5)</sup> 넷째,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군사무기 네트워크는 다른 지역의 무기이전 네트워크 (예를 들어, 유럽 지역에서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와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50년간의 (냉전기/탈냉전의 시기적인 구분과 더불어) 군사무기 네트워크 구조의 종단적 비교연구(시기적인 비교)와 더불어 횡단적 비교연구(지역적인 비교)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에의 적용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다음의 몇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국제기구 네트워크 구조 연구 (국제기구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통한 국제분쟁연구, Hafner-Burton and Montgomery 2006); 2) 국제무역 네트워크 구조 연구 (Mahutga 2006); 3) 국제 무기이동 네트워크 구조 연구 (Smalls Arms Black Market 네트워크 구조 연구, Kinsella 2006); 4) 국제 핵무기 네트워크 구조연구 (Atomic Bomb 네트워크 구조 연구, Montgomery 2005).

5) 예를 들어, 지난 50년간의 한국이라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시험적인 분석은 다음의 몇몇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군사무기 수입은 1970년대까지의 미국일변도로, 그 이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포함한 5-6개국으로의 확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군사무기의 수출은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2-3개의 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위시되는)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9> 국가의 무기이전 네트워크



### c. 연구방법

본 과제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과 네트워크 분석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더불어, 네트워크방법론의 국제정치학에의 적용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에 대한 소개,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에서 적용의 사례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본 과제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 과제에서는 다음의 세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방법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의 검토)? 둘째, 국제정치학에서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셋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한 국제정치학의 모습의 기존의 다른 분석방법을 이용한 국제정치학의 모습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데이터에의 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다양한 기존의 문헌분석과 더불어, 네트워크 분석방법들을 이용한 국제정치학에서의 몇 가지 현상들에의 시론적인 적용이 더불어 시도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방법론의 무기이전 사례 적용을 위하여, 필자는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서 수집하고 있는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Arms Transfers Database)의 이용을 통한 1950부터 2000년까지의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무기이전의 자료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들의 모든 무기이전 (여섯 가지 종류의 주요전통무기, major conventional weapons)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기의 판매 (생산 라이선스의 판매를 포함하여)와 더불어 선물/원조와 같은 무기제공의 형식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50년간의 군사무기자료들을 이용하여, 본 과제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첫째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들과 그의 시기적/지역적인 변화를 그리고 둘째 군사무기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행위자들과 그의 시기적/지역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그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사회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인 Ucinet과 사회네트워크 그래프분석 프로그램들인 NetDraw와 NetMiner를 사용하여, 첫째 네트워크 구조적인 특징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지수들 (대표적으로, connectedness, hierarchy, efficiency, and least upper boundness) (Krackhardt 1994) 그리고 둘째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의 특징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중심성에 관한 지수들 (대표적으로, Degree, Betweenness, Flow-betweenness, Coreness, Egonet-brokerageness)을 이용하는데 본 과제의 중점을 둘 것이다 (Hanneman and Riddle 2001; Degenne and Frosé 1999; Wasserman and Faust 1994; Scott 2000; Knoke and Kuklinski 1982; Brandes and Erlebach 2005).

### 과제 3: 네트워크이론의 시각에서 본 9.11 이후 미국의 반(反)테러 동맹전략

-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군사변환전략과 외교동맹전략)
- 9.11 이후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변환 (테러네트워크의 등장/위협)
- 냉전시기 지역동맹전략에서 21세기 반테러 네트워크 동맹전략으로의 변화
- 미국의 네트워크 동맹전략과 한반도 통일전략

#### a. 문제제기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안보질서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고 미국은 이를 변환(transformation)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White House 2006).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질서가 종식된 이후,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은 반테러전쟁(anti-terrorist campaign)과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non-proliferation)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현안으로 등장시켰다. 미국 정부는 이후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양축으로 반테러전쟁과 폭정의 종식 등 자유의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Rice 2006). 이러한 테러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네트워크(network)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군사부문의 변환전략과 외교부문의 동맹네트워크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반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과 동맹변환 및 해외기지의 재조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등을 반테러 전쟁을 위한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핵심적인 현안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시 변화하는 세계안보질서 및 지역질서 속에서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속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한반도 역시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변화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전략의 핵심 방향은 테러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변환과 변환외교라는 변환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와 2002년 및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중심이 냉전시대의 주요 전장(theater) 중심에서 21세기의 동시다발적이고 전 세계에 산재하는(ubiquitous), 예측 불가능한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옮겨와서 이제는 테러집단과 같은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사전견제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을 살펴보고 그 노력이 반테러 동맹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네트워크 동맹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한국 동맹전략의 변화와 이에 기초한 한국의 통일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본 연구는 또한 검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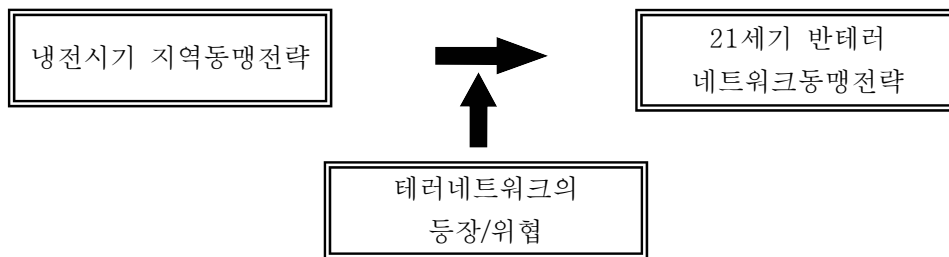
#### b. 연구내용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은 정보통신기술혁명의 비약적 발전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군사부문에서의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에 기반을 두어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 conflict)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Barnett 2004). 따라서 미국의 해외군대와 동맹의 운용은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가지며 언제 어디서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유동군(flexible Striker Brigade Combat)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변화는 특정지역에 주둔하여 지역방위를 위해 유지되던 냉전시대의 고정군 중심의 기존 동맹개념 변화를 요구한다. 어떠한 지역에서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 병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 형 동맹체제로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변환의 새로운 모습이다. 또한 미국은 군사 부문에서의 변환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폭정을 종식하고 자유주의를 전파하여 불량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환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러한 변환전략을 구상해 왔고,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동맹네트워크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의 네트워크 동맹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확산방지구상(PSI)이다. 미국은 점증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세계적 확산이 세계안보질서를 위협함을 강조하며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을 2003년 5월 발표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9/11 테러 이후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들의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반확산(non-proliferation) 정책과 반테러(anti-terrorist)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의 대량살상무기를 강제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예방적 방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PSI의 시행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는는 규범적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공해상에서 선박의 무사통행이라는 국제법적 원칙 및 관행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I는 점증하는 테러네트워크의 위협과 이들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대의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PSI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동맹네트워크를 재편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림 10> 미국의 네트워크 외교동맹 국가전략



반테러 동맹네트워크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는 미국 국가전략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의 확산이다. 미국은 테러와 같은 최근의 불특정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신속하게 이동하고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어 냉전기의 고정군에서 신속기동대응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냉전시대에 소련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특정지역에 대규모로 주둔하던 방식은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었다. 테러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소규모로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수시로 입출입(in and out)하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력의 유연성이 동맹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군사기지를 재편하고 새로운 개념의 동맹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유

연성의 개념 하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시 냉전시대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주둔군 형태가 아닌 신속기동군 형태의 유동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인 발전방향이다 (이상현 2006a).

결국 미국의 21세기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성패는 어떻게 동맹네트워크를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세계안보환경 변화의 새로운 동인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테러네트워크의 활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동맹의 네트워크화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c. 연구방법

미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우선 NSS와 QDR 등 미국 국가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정부백서들과 정책당국자들의 언급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동맹전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각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피하고 있는 반테러 네트워크 변화의 구체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기존 군사동맹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변환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네트워크 동맹정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담회를 개최하고 RAND Corporation이나 Brookings Institution 등의 관련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연구를 지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과제 4: 21세기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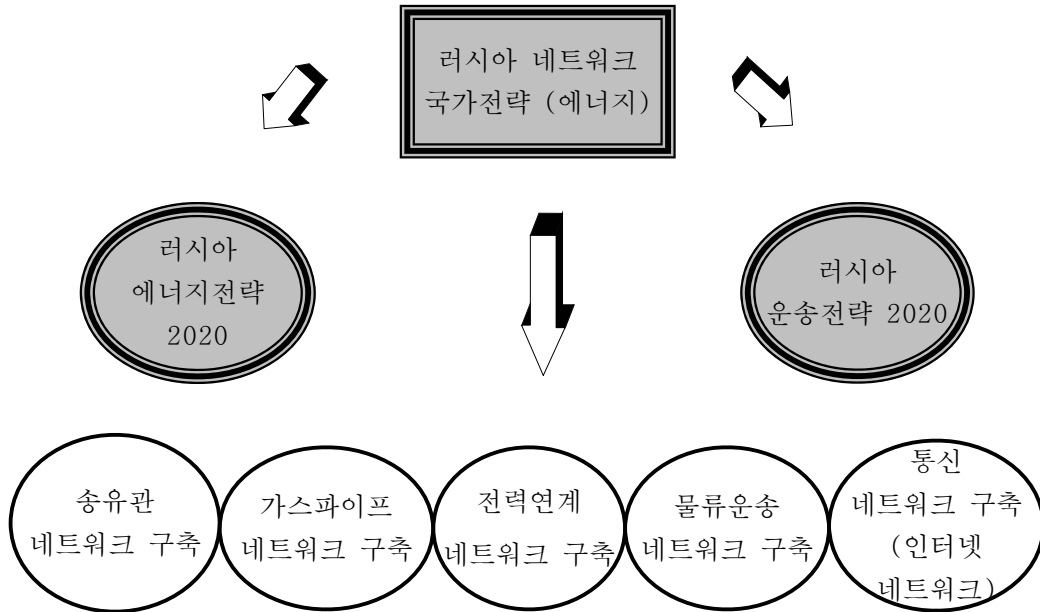
-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에너지 네트워크 연구
- 에너지배관망과 지역정치: 에너지현장과 러-유럽관계
- 유라시아 신거대게임과 에너지 배관망 각축과 에너지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러시아의 동진
-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네트워크 전략의 한반도 통일에의 미치는 영향

### a. 문제제기

21세기에 두드러지는 새로운 국제정치현상 가운데 하나는 세계정치의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그 구성 및 양식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가운데 기존의 ‘국민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재구축하여 심대한 변화에 적응해 가는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즉 기존 ‘국가’라는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는 러시아가 변화된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국의 영향력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하는 기제로서 에너지배관망 네트워크를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러시아의 국가적 시도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가 과거(냉전기)와 어떤 차이와 연속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b. 연구내용

<그림 11: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에너지 공급) >



러시아는 소비에트시기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안으로는 소비에트연방 구성 공화국들에 대한 통제력을, 밖으로는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러한 러시아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러시아의 풍부한 화석에너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은 일국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구도 속에서 전지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림-12> 카스피 해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망

[ 카스피 해 석유파이프라인망 ]



[ 카스피 해 가스 파이프라인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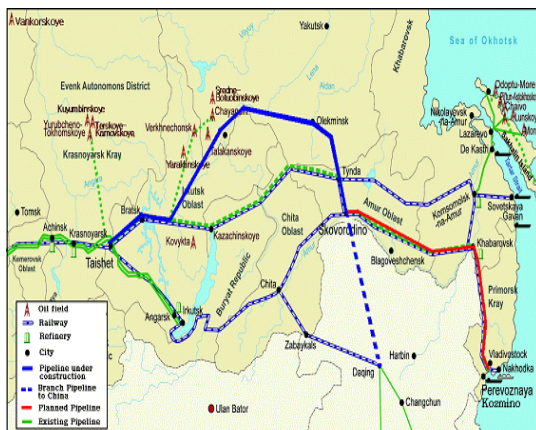


러시아는 이미 1980년대 유럽과 구축한 단일 가스 및 석유 배관망을 통하여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전략의 핵심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지구적 경쟁이 치열한 곳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지정학적 구도의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카스피 해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송유관 경쟁의 1라운드를 벌였고, 이에 미국이 주도한 BTC송유관(바쿠~트빌리시~세이한) 사업이 완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새로운 대안 CPC 송유관 (카자흐스탄 ~ 러시아 노보러시스크) 송유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배관망의 구축을 둘러싼 복잡한 경쟁구도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라시아 국제정치 구도의 재편과 관련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의 확대라는 목표 속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정치적 경쟁구도의 함의가 강화되면서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13> 러시아의 송유관과 가스관 배관 계획

[ESPO 송유관 계획]



[동시베리아·극동 가스관 배관 계획]



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러시아의 대(對)아태 지역에 대한 에너지수출 전략은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에 산재한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새로운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ESPO) 배관망 연구에 착수해 있다. 이러한 송유관이 구축되면 가스관 건설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이 배관망 간선을 각 지역 국가 연결하는 지선건설 작업도 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에너지 수급이라는 경제적 원칙 이외에도 러시아의 지전략적 고려라는 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에 역내 국가들의 대응이 매우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자국의 아태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두 개의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첫째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이며 둘째는 '러시아 운송전략 2020'이다.<sup>6)</sup> 이러한 전략들은 동북아국가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칠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은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전략의 요구에 의해 작성이 요구되고 있는 몇 가지 대형 연구들이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체의 출범을 견인할 계기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에너지 분야의 운송망인 파이프라인을 포함 하는 망(Network)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전략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망(Network)사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송유관망 구축사업이고, 둘째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EGS)을 포함하

6)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는 가스파이프망이고, 셋째는 전력연계망이고, 넷째는 시베리아철도를 포함하는 물류 운송망이다. 이러한 네 가지 망의 구축과 함께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정비도 수반 할 것으로 예상되며, e-Russia 사업과 연계된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으로 5대 망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망(Network)사업을 통하여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동 지역의 에너지자원의 개발은 물론 동 지역의 아태지역으로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동북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주의적 협력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유럽지역과 유라시아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및 기타 배관망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자원의 이점은 물론 자국이 점유한 지리적 중간자로서의 위치성이 지닌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의 망사업(network project)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국가전략으로서의 특성과 새로운 21세기적 네트워크 국가전략으로서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러한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러시아의 국가전략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에 주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네트워크 재조정의 전략들에 대한 일반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 연구방법

우선, 상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러시아의 국가전략으로서 네트워크사업, 특히 에너지 배관망 사업의 개요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러시아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 부문의 국제경제학적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주종이었고, 이를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다루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러시아의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적으며, 최근에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ской Фк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와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ской Фк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의 문건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가전략으로서의 네트워크 전략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추출하기 위하여 신거대게임의 틀을 가지고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네트워크사업전략을 연결점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대외적 영향력의 자산으로서 에너지와 그 영향력의 통로로서 에너지 배관망이 지니는 상관관계 그리고 그 영향력의 행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의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의 일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네트워크 이론들의 적용을 통하여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을 ‘노드 간의 정치(inter-nodal politics)’를 넘어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국가 러시아가 추구하는 네트워크화 된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 네트워크형 행위자들 간의 세계정치,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들 간의 ‘망제정치’에 대한 복합적 전략으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 과제 5: 지구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그리고 일본의 네트워크 경제전략

- 생산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decentralized but coordinated production networks)
-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주의의 제도화 사이의 관계
- 동아시아 개별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과 네트워크 간 결합방식
-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 a. 문제제기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세계화는 사회과학계의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른바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는 공간적 거리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시장의 압력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단일한 대응을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정책적·제도적 차별성은 점차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반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세계 각국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범주와 제약 속에서 세계화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다양성과 차별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세계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찬반론적 성격의 논쟁을 뛰어 넘어, 세계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과정은 국가 수준도, 지구적 차원도 아닌, 제3의 인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의 경제 통합은 원자화된 형태의 시장의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국가 대 국가의 통합도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통합은 '분산된 그러나 조정된 형태'의 생산 네트워크(decentralized but coordinated production networks)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 시대의 경제 통합은 지구, 지역, 국가, 지방이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세계와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이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은 남북한 및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지역, 국가, 지방이라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 통합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는 다국적기업, 토착 기업,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들을 독립된 행위자로서 분석하기 하기보다는 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킹(networking)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은 남북한 및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과 그에 따른 제도화를 행위자들이 연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경제 통합의 과정을 보다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의 제도화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내 교역의 증가→투자의 활성화→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지역통합의 제도화라는 경제 통합의 과정을 거쳤음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생산 네트워크는 지역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럽 및 북미의 경우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의 제도화 사이의 연관성이 유럽/북미와 동아시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구 수준에서 형성된 지구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 수준에서 형성된 지역 생산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의 상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 b. 연구내용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주의의 제도화 사이의 관계가 유럽/북미와 동아시아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의 역할과 지역주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역 간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 네트워크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정적 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생산 네트워크의 동태적 변화에 따른 지역주의의 제도화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형성된 개별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과 네트워크 간 결합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의 제도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 네트워크의 차별성에 따른 작동 원리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심이 된 생산 네트워크, 일본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2000년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모기업의 특성 및 사업전략,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특성, 토착 기업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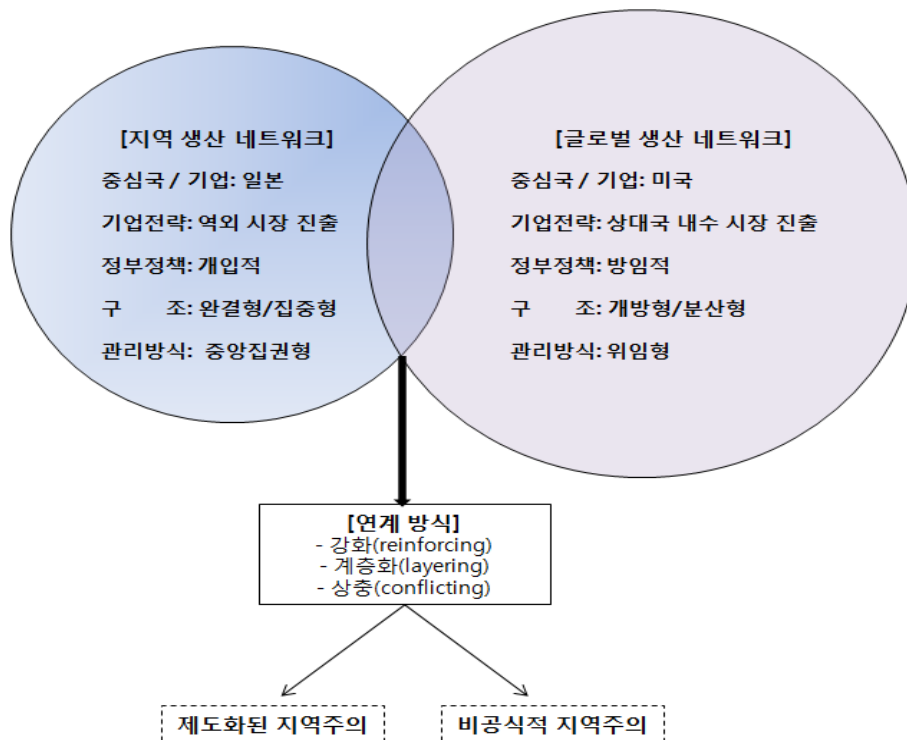
미국의 생산 네트워크는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델(Dell), 애플(Apple), 컴팩(Compaq)과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광범위성은 미국 모기업이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된 토착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중앙 통제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토착 기업에는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생산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신축성 있게 관리된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는 일본 내의 경쟁에서 밀려난 산요(Sanyo)와 아이와(Aiwa) 같은 2류 또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중소기업은 필연적으로 자원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반영하여, 생산 네트워크 역시 동남아시아라는 비교적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김주훈 2004: 44-45).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일본 모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 중앙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본 생산 네트워크는 국내 정치경제적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여 미국의 생산 네트워크에 비해 배타적이다.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성격과 외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참여 기업 간 수평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 역시 개방성과 유동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둘째, 상이한 특성을 가진 생산 네트워크 간 결합 방식을 분석한다. 생산 네트워크는 지구(global), 지역(regional), 지방(local)의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한다. 문제는 다양한 수준의 생산 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coupling)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간 결합이라고 하는 동태적 과정이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에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의의 제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 생산 네트워크가 타 생산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기존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기존 생산 네트

워크의 특성의 강화는 지역주의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네트워크의 결합이 기존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경우, 지역주의 제도화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일본 생산 네트워크의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 생산 네트워크가 부상하며, 미국 생산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간 결합의 독특한 양상이 발견된다. 즉,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 불황에 직면한 일본은 국내 정치경제 개혁에 골몰하면서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운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다시 확대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중국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 생산 네트워크와 중국 생산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간 결합은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가, 일본 네트워크와 달리, 개방성, 유동성, 수평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림 14>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의 제도화



한편,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개방과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왔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가 일련의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개성 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를 한 것 역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선도 기업, 로컬 기업 등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생산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차원적 시도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향후의 경제적 조건은 북한을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조 속에 포함하는 일이 될 것이다.

### c. 연구방법

첫째, 본 연구는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 제도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합적 틀의 개발은 특정 국가의 통상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설명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유럽·북미·동아시아가 체결한 지역협정의 내용과 범위, 수준, 그리고 제도화의 수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은 세 지역의 제도화 정도를 비교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

셋째,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추적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정태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인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의 현지 연구를 수행한다. 이 기간 중 기업 관계자, 정부의 정책결정자 및 통상정책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지 연구는 지역주의의 제도화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요 행위자의 인식체계와 이해관계의 변화, 그리고 지역주의의 제도화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과제 6: 중국의 인권문제와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북한 탈북자 문제에 주는 함의

-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확산
-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국가 네트워크의 충돌
-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국 인권문제에의 영향: 티베트의 사례
- 인권네트워크의 세계정치가 북한 탈북자 인권문제에 주는 함의

#### a.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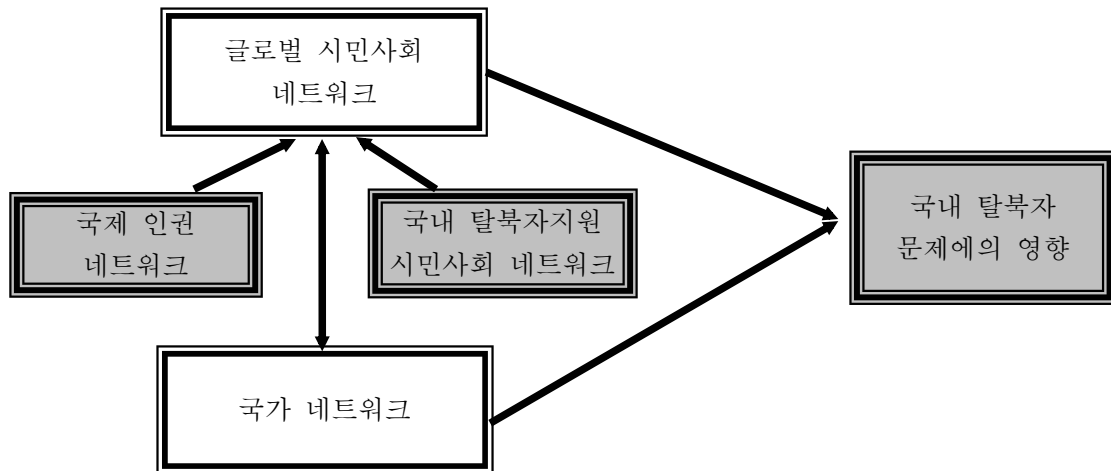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치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 확산과 더불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시민행동주의의 강화 현상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의 국민 국가내에서 취급되어온 안보, 인권 문제들은 이제 일국적 또는 양자적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정보유통과 의사결정 구조를 극복하여, 초국가적인 시민들간의 연대활동과 정보공유 활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국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던 인권 유린, 학대 등의 문제들은 폐쇄적인 정보유통을 통해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민행동주의 역시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별 국가내에 비공개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왔던 인권의 문제는 국가들 간의 정치적 타협과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는 쉽게 부여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기존의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익, 안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제한되어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원칙들이 쉽게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탈북자 문제나 중국의 티베트 사태들은 중국, 한국, 북한 등의 국가간 관계에서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취급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인권문제로 접근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국내 탈북지원, 세계 인권단체들, 그리고 티베트 사태와 관련된 중국내외의 인권보호 단체들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른바 시민 지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필요한 정보공유와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탈북자 문제와 티베트 사태는 관련 해당 국가들의 안보 네트워크와 전 지구적 시민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 네트워크간의 충돌의 한 지점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실천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간 안보 의제를 초월하는 전 지구적 의제로 확산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간의 안보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시민사회 실천 네트워크의 정보전달과 연대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이른바 온라인으로 매개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b. 연구 내용

글로벌 시민 지식 네트워크와 국가간의 네트워크가 상호 충돌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문제를 전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관계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기존 문헌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한국의 국가간 관계에서 점차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와 티베트 사태와 관련된 글로벌 시민네트워크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3국가의 안보관계를 위협하는 인권 네트워크의 사례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활동과 인권 보호의 과정, 실제 효과 등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그림 15 > 글로벌 시민네트워크의 탈북자문제에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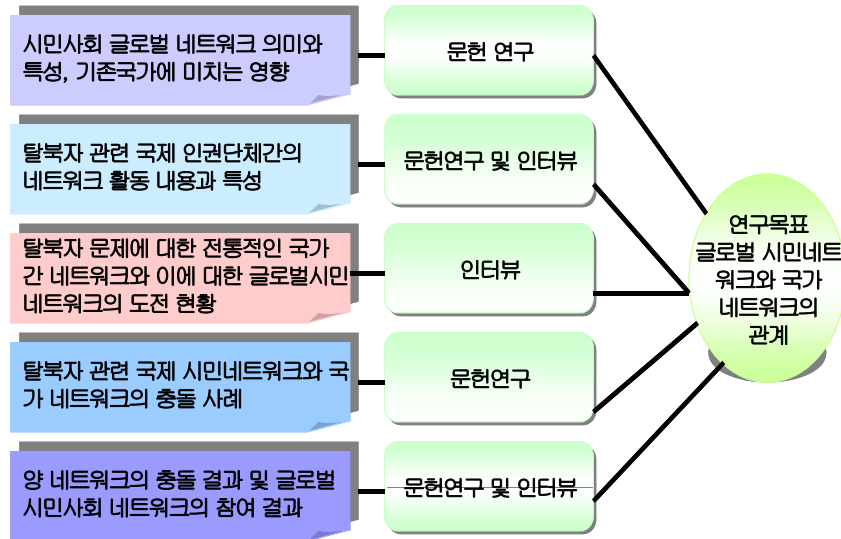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 지식 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국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형태에 기반하여 도출 가능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탈북자와 최근 이루어진 티베트 사태와 관련된 해당국 시민사회 단체와 국제 인권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의 진전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시민사회 지

식 네트워크의 효과를 파악한다. 특히 국내 탈북자지원 시민단체나, 중국의 티베트 지원 인권단체들이 국제 인권단체와 연결되는 과정,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콘텐츠의 전문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민 실천 네트워크의 특성과 영향력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6> 주요 연구내용



세 번째로 탈북자 문제와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최근 입장과, 이러한 입장들이 중국, 북한, 한국간의 기존 국가관계에 반영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별 국가들의 안보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네트워크에 노출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상호간의 갈등과 수용 과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탈북자 및 티베트 사태 관련 국제회의 또는 국가간 회의 등에서 나타난 시민 네트워크의 일련의 활동들을 기술하고, 이러한 활동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례에서 나타난 개별 국가들의 탈북문제, 티베트 사태 처리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인권 네트워크의 영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 c.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첫 번째는 문헌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시민사회 지식 네트워크의 형성과 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민 지식 네트워크의 의미와 변화를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문헌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 탈북자 문제와 중국의 티베트 사태에 대한 기존 국가들의 입장이나 대응방식에 대한 정부 문건과 기존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해당 국가간 공식 및 비공식 협의와 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자 문제와 티베트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내 및 주요 이해당사자국들의 주요한 대응양식을 기술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interview)방법이 활용된다. 국내 통일과 외교 담당부처의 탈북 및 티베트 사태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시도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메일을 통해 탈북 지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티베트 사태와 관련된 중국 및 국제 인권보호 기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하고, 가능한 연대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 3. 국내외의 연구동향

####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여전히 노드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선구적으로 노드에 고착된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엿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관점에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위상을 짚어보면 <그림-17>와 같이 그려 볼 수 있다.

<그림-17>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위상

네트워크의 발상	<3> 세계체제론	<5>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4> 비판구성주의 신그람시주의	
노드의 발상	현실주의 <1>	자유주의 구성주의(웬트) <2>
	하드파워의 발상	소프트파워의 발상

-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전형적으로 노드의 발상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그림-17>의 <1-영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부국강병(富國強兵)’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hard power)’를 추구하는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Morgenthau, 1948).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국민국가들 간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하 BoP)이 현실주의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월츠(Kenneth Waltz)의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도 노드들 간의 물질적 권력의 분포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structure)'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BoP의 마인드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Waltz, 1979).
-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그림-17>의 <2-영역>에 보는 바와 같이, 현실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발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의 복합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름대로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다(Keohane and Nye, 1977).

그러나 그 이후 작업을 보면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를 기본으로 놓는 노드의 시각을 취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Keohane, 2002). 한편 나이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개념은 노드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이 아닌 관계적 맥락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탈(脫)노드적 발상의 단초를 보인다(Nye, 2004).

-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웬트(Alexander Wendt)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림-17>의 <2-영역>에 해당되는 국가 중심의 노드 이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Wendt, 1999). 다시 말해 웬트는 관념(ideas) 변수에 의한 이익(interests) 변수의 구성을 논하지만, 기본 단위는 여전히 노드로서의 국민국가인 것이다. 월츠의 이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다보니깐 생겨난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비해서 탈 노드적 이론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서 일찌감치 부터 탈 노드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근대 자본주의체제라는 체제 수준의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별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탈 노드적 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Wallerstein, 1980). 그러나 세계체제론은, <그림-17>의 <3-영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이라는 ‘하드파워’의 권력자원에 국한된 발상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세계체제론은 여전히 단순계(simple system)의 마인드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복잡계(complex system)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발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현황은 여전히 노드의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평면적인 BoP의 마인드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권력메커니즘을 읽어내는 ‘세력네트워크(network of power, 이하 NoP)’의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NoP의 마인드는 소위 ‘하드파워’에 기반을 둔 평면적인 세력균형의 이해를 넘어서 ‘소프트파워(soft power)’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세력네트워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NoP의 마인드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 마인드’를 넘어서 복합적인 ‘비(非) 제로섬 게임 마인드’의 부상도 의미한다.

### 선구적 시도들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 진영 내에서도 노드 차원의 발상을 넘어서려는 NoP의 마인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을 굳이 분류하자면, 대체로 <그림-17>의 <4-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업들은 네트워크 시각에서 본 일반 이론화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소 단편적인 개념들을 제시하는 차원에 그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도들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 진영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실주의 전통<sup>7)</sup>에서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개념이나 국민국가의 쇠퇴에 대한 논의는 국민국가라는 노드 단위의 이론을 넘어서는 이론적 시도의 단초를 보여주었다(Strange, 1988; 1996). 한편 전쟁과 안보 연구에서 아키야(John Arquilla)와 론펠트(David Ronfeldt)의 네트워크와 네트전(Netwar)에

7) 엄밀하게 말하면 수잔 스트레인지의 현실주의는 ‘급진적 현실주의(Radical Realism)’라고 불린다.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략연구의 성격을 띠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Arquilla and Ronfeldt eds., 2001).

-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험적 연구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정부 간 네트워크를 탐구한 슬로터(Anne-Marie Slaughter)의 ‘해산된 국가(disaggregated state)’에 대한 논의가 있다(Slaughter, 2004), 이밖에 초국가 생산네트워크(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PNs) 연구(Borras, Ernst, and Haggard eds., 2000), 신용평가기관과 금융 네트워크 연구(Sinclair, 2005), 정책지식 네트워크 연구(Stone and Maxwell eds., 2005) 등을 들 수 있다.
- 비판구성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전통에서는 하아스(Peter Haas)나 애들러(Emanuel Adler) 등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 대한 연구가 네트워크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Haas ed., 1992; Adler and Bernstein, 2005). 또한 부르디외(Pierre Bourdieu)를 인용한 드잘레이(Yves Dezaley) 등의 국제 지식네트워크 연구도 선구적인 시도를 펼쳤다(Dezaley and Garth, 1996; 2002). 그런데 비판구성주의 시각의 인식공동체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탈 노드의 시각을 취하는 것은 맞지만,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네트워크보다는 좀 더 탈구조주의적인 성향을 띠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신그람시주의 성향을 띠는 연구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그리고 노드와 네트워크를 모두 아우르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콕스(Robert Cox)는 이익-제도-관념의 동태적인 분석틀을 통해서 국가 노드의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사회세력 형성과 세계질서 변화의 구성적 메커니즘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Cox, 1981; 1987). 이밖에도 네오마르크스주의 진영의 국가론(Poulantzas, 1978; Ansell and Weber 1999; Castells 1998, 2004; Jessop 2003)도 국가 노드의 네트워크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sup>8)</sup> 좀 더 본격적으로 체제 차원에서 네트워크 발상을 도입하고 있는 연구로는 하트(Michael Hardt)와 네그리(Antonio Negri)의 제국(empire)과 다중(multitude)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Hardt and Negri, 2000; 2004)
- 한편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볼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의 작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기존 주류 이론 진영 내에서 본격적인 탈 노드 이론의 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로즈나우(James Rosenau)의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계이론을 국제정치학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벌인 저비스(Robert Jervis)의 연구이다(Rosenau, 1990; 1995; 2003; Jervis, 1988). 국제레짐이나 국가의 자기조직화 메커니즘 분석에 복잡계 시각을 도입하고 있는 브라만(Sandra Braman)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Braman 1994; 1995; Braman ed., 2004)

그러나 이상의 선구적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치 현실에서 네트워크가 부상하는 떠들썩함에 비하면 <그림-17>의 <5-영역>을 탐구하는 이론진영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그림-17>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 등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논의를 <4-영역>을 거쳐서 <5-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시도는 아직 시론의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모색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하영선 편, 2006;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민병원 2005; 김상배, 2006). 그런데 이러한 국내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는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국가의 부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국가의 변환에 따른 네트워크국가의 부상과 함께 비국가 네트워크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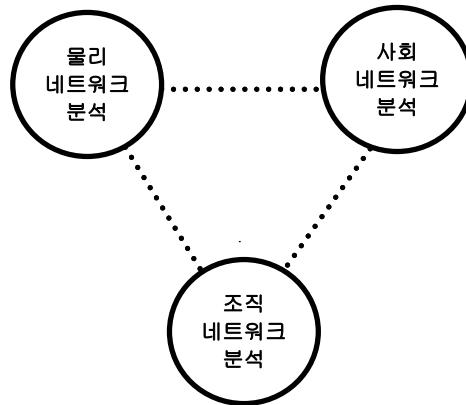
8) 이밖에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시각에서 국가론을 펼치고 있는 연구로는 ‘지구국가(Global State)’에 대한 논의(Shaw 2000), ‘지구정치체(Global Polity)’에 대한 논의(Ougaard and Higgott, eds., 2002), ‘발전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에 대한 논의(Ó Riain, 2004) 등을 들 수 있다.

들의 도전이라는 입체적인 구도 속에서 행위자 수준뿐만 아니라 체제 수준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구조와 동학까지도 탐구하고자 한다.

### 네트워크이론의 도입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복잡계이론)은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원용하려는 기존의 네트워크이론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위 ‘네트워크이론’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분류될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영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그림-18> 참조).

<그림-18> 기존의 네트워크 분석



- 첫째, 기존의 물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조를 밝히려는 이론적·실증적 분석이다. 굳이 명명하자면 ‘물리 네트워크 분석(physical network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계 생물의 네트워크나 기술과 통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네트워크 등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밝히려는 것이 물리 네트워크 연구의 주요 관심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Barabási(2002), 와츠(2004), Urry(2003) 등을 들 수 있다.
- 둘째, 주로 사회학과 인류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행해지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과정(process)’ 수준에서 링크를 형성하는 노드(행위자)들의 정형화된 관계의 집합으로서의 연결망을 탐구한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의 유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테크닉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connectedness), 호혜성(reciprocity)과 상호성(mutuality)의 정도 등에 관심을 둔다(김용학, 2007).
- 끝으로, ‘구조(structure)’ 수준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에 접근하는 ‘조직 네트워크 분석(organizational network analysis)’이다. 조직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기업경쟁과 경제조직을 탐구하는 조직경제학과 조직사회학 등에서 활용된다. 이들 분야는 IT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이 부상하는 지배적인 조직의 형태로서 네트워크형 조직에 관심을 둔다. 이들 연구의 전제는, 사회조직의 네트워크 형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최근 IT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IT시대의 경쟁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적응성, 반응속도 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의 부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조직 네트워크 분석은 산업부문별 시각을 바

탕에 깔고 있다(Castells, 2004).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주로 세 번째의 조직 네트워크 분석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고 물리 네트워크 분석이나 사회연결망 분석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경험적 사례 분석을 담당하는 개별 꼭지들에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물리네트워크 분석이나 사회연결망 분석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정치학에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과제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sup>9)</sup>

## 4.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이론연구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이론틀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이나 자유주의 이론, 심지어 이러한 주류 이론들을 비판해온 구성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국민국가를 노드로 하는 노드 중심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국민국가의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이 의미하는 네트워크 시각의 세계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설명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론적 논의는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서,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의 공유라는 관점에서든 학계에 대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론적 논의를 통한 국제정치 환경변화의 고찰이 한반도 통일전략의 수립에 주는 이론적인 함의도 크다.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고찰이 결여된 한반도 통일전략의 수립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전략적 관점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전략이 추구해야 할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일학 발전에의 기대효과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실천전략 연구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존의 노드중심의 국가 간의 관계에 기초한 정부의 국가전략이, 여러 측면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과 그의 기존 국가와의 관계에의 영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미래 국가전략의 기초연구 특히 한반도 통일전략에의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담론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21세기를 맞이하여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후속적인 이론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노드 중심의 국제정치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인 기존 국가의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에 따른 여러 현상들을 파악하는데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의 모습들을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다루는 망제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봄으

9) 국제정치학의 분야는 아니지만 비교역사학의 연구에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작업으로는 Gould(2003)이 유용한 길잡이를 준다.

로써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지니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시대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학계는 국가의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부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략의 수립에서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시대 세계정치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으로써, 한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21세기 국제환경에 맞추어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을 검토하는 정책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 결과는 지구화와 정보혁명 시대의 사회과학 교육과 통일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활용됨으로써 네트워크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에게 학문적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연구 최종결과물은 서울대 출판부의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 『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 등에 편집단행본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출판 할 예정이며, 특별히 학계에 소개하여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유발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론의 모색을 위한 기초 및 배경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연구연도의 작업을 바탕으로 그 다음 연구연도의 작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6. 연구추진계획 (연구추진전략, 연구분담계획 등)

### 가.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네트워크 시대 세계정치의 변화와 이의 한국 통일정책의 전략적 선택에의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두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개의 주제그룹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 제1부에서는 연구 전체의 진행을 위한 개념적·이론적 주제를 다룬다. 특히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입체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틀과 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제2부에서는 총론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4개의 사례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9.11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 네트워크 동맹전략, 21세기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네트워크 전략과 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지구 생산(경제) 네트워크와 이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의 영향, 중국 티베트 인권과 북한 탈북자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고찰들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정책에 주는

합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본 연구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추진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주제별·과제별 성격에 맞추어 적합한 연구의 방법을 채택할 것인데, 전반적으로 문헌분석과 해외 현지조사, 데이터의 계량적 분석 방법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중요시 될 것이다.

-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내용정리를 위해서 모든 과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부터 시작될 것이다. 문헌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공식 문건, 학계의 연구논문,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도서관 자료정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기본적인 문헌분석 이후에는 다양한 1차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없었던 모습들을 그려낼 것이며, 또한 각종 전문가와 정책입안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 각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나 계량화 작업등의 통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과제 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에서는 다양한 수량적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다른 과제 연구에 대한 기반작업을 하려고 한다.

#### 나. 연구수행일정

기 간 (추진 년월)	내 용	비 고
2008년 9월	제1차 연구회의: 업무의 분담 및 각 주제그룹별 연구기획회의; 각 과제별 연구자료 수집 시작	연구회의 및 월례세미나
10월	각 과제별 문헌연구 시작	월례세미나
11월	<이론: 과제1 과 과제2>의 우선적 작업	월례세미나
12월	제2차 연구회의: 연구 중간점검	연구회의 및 월례세미나
2009년 1월	<이론: 과제1 과 과제2> 중간발표회	월례세미나
2월	<사례: 과제3 ~ 과제6>의 작업	월례세미나
3월	<사례: 과제3 ~ 과제6>의 작업	월례세미나
4월	<사례: 과제3 ~ 과제6> 중간발표회	월례세미나
5월	제3차 연구회의: 연구중간점검 및 공개발표회 계획 논의	연구회의
6월	<이론: 과제1 과 과제2> 최종발표	공개발표 및 월례세미나
7월	<사례: 과제3 ~ 과제6> 최종발표	공개발표 및 월례세미나
8월	제4차 연구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연구회의

다.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과제1)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한반도 통일연구에 주는 함의	1
공동 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임연구인력	(과제2)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국제정치학적 적용: 무기이전의 사회연결망분석(SNA) 사례	
	일반공동 연구원	갑	(과제3) 네트워크이론의 시각에서 본 9.11 이후 미국의 반(反)테러 동맹전략	
		을	(과제4) 21세기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병	(과제5) 지구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그리고 일본의 네트워크 경제전략	
	정	(과제6) 중국의 인권문제와 지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북한 탈북자 문제에 주는 함의		

라. 해외출장계획

본 연구는 네트워크 시각의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변국가의 네트워크 전략과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소 및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의 네트워크 전략과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이 앞으로의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팀의 공동연구원들이 본 연구를 위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연구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현지조사 계획에 고려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

- 네트워크 세계질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의 검토를 위하여 네트워크 관련 각종 연구소들의 방문이 또한 수행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Silicon Valley에 위치한 몇몇 연구소들(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The Silicon Valley Networks Analysis Project Institute)과 산타페 근교의 Santa Fe Institute를 방문하여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예정. 웹사이트 <http://www.stanford.edu/group/esrg/siliconvalley/>와 <http://www.santafe.edu/>를 참고할 수 있다.
- RAND Corporation: L.A. 근교에 위치한 군사변화의 세계전략에 관한 연구소로서 정치, 안

보, 군사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반테러 네트워크 동맹전략의 발전과 변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담당자들과의 관련 인터뷰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웹 사이트 <<http://www.rand.org/>>를 참고.

- 이외에도 미국 방문 시 군사와 안보 분야, 경제와 문화 관련,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의 정부기관들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 7. 참고문헌

- Adler, Emanuel and Steven Bernstein. 2005. "Knowledge in Power: The Epistemic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in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94-318.
- Aggarwal, Vinod K. 1994. "Comparing Regional Cooperation Efforts in the Asia-Pacific and North America."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40-65. Boulder, CO: Westview Press.
- Ansell, Christopher K. 2000.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pp.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1999.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pp.73-93.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2001.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 Axelord, Regina S., David Leonard Downie, and Norman J. Vig, eds. 2005. *The Global Environment: Institutions, Law, and Policy*. Second Edition. CQ Press.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Baran, Paul. 1964. "On Distribute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s Network." *RAND Memorandum*. RM-3420-PR, <<http://www.rand.org/publications/RM/RM3420/>> (검색일: 2004년 12월 4일).
- Barnett, Thomas P.M. 2004. *The Pentagon's New Map: War and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G.P. Putnam's Sons.
- Berkowitz, S. D. 1982. *An Introduction to Structural Analysis*. Toronto: Butterworths.
- Bernard, Mitchell and John Ravenhill. 1995.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171-209.
- Blanton, Shannon Lindsey. 2000.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Developing World: U.S. Rhetoric versus U.S. Arms Expor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123-131.
- Borras, Michael,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2000.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aman, Sandra. 1994. "The Autopoietic State: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Potential in the 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6).

- pp.358-368.
- Braman, Sandra. 1995. "Horizon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45(4), pp.4-24.
- Braman, Sandra. ed. 2004.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randes, Ulrik and Thomas Erlebach. eds. 2005. *Network Analysis: Methodological Foundations*. Berlin and New York: Springer.
- Bunn, Matthew and Anthony Wier. 2005. "The Seven Myths of Nuclear Terrorism." *Current History*, (April): 153-161.
- Burt, Ronald S. 1980. "Models of Network Struc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79-141.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2001.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pp.1-18.
-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and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 Castells, Manuel, 1998. *End of Millennium*, Malden, MA: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3-48.
- Chase, Kerry A. 2003. "Economic Interests and Regional Trading Agreements: The Case of NAFT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1): 137-174.
- Chufrin, Gennady. 2004. "Russia's Caspian Energy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U.S.-Russian Relationship," Energy Forum Paper. Houston: James A. Baker Institute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ersity.
- Cordesman, Anthony H. 2000. "The US Government View of Energy Developments in the Caspian, Central Asia, and Iran." DOE/EIA Report on Caspian. Washington D.C.: CSIS.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pp.126-155.
- Cox, Robert W.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ronin, Audrey Kurth. 2002/03. "Behind the Curv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27(3): 30-58.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40.
- Cutler, Robert M., Laure Despres, and Aaron Karp.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South Military Transf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1(3): 273-299.
- Degenne, Alain and Michel Forsé. 1999. *Introducing Social Networks*. London: SAGE.
-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ibert, Ronald J. and Janice Gross Stein. 2002. "Hacking Networks of Terror." *Dialog-IO* 2002(Spring): 1-14.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1996.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200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Dowling, Malcolm and Wignaraja Ganeshan. 2006. *Central Asia's Economy: Mapping Future Prospects to 2015*. Washin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EIA. EIA Country Analysis Brief, 시리즈 중 “Russia Brief”, “Caspian Sea Brief”, “Kazakhstan Brief”, “Central Asia Brief, Azerbaijan Brief”, “Caucasus Brief”, “Turkey Brief” 등. (<http://www.eia.doe.gov/emeu/cabs/>).
- Erler, Gernot and Friedman Muller. 1999. *A Great Game No More: Oil, Gas and Stability in the Caspian Sea Region*. Washington D.C.: Friedrich-Ebert-Stiftung.
- Feng, Yi and Gaspare M. Genna. 2003. “Regional integration and domestic institutional homogene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Pacific Asia and Western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278-309.
- Fowler, James H. 2006.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s.” *Political Analysis*, 14(4): 456-487.
- Fowler, James H., Timothy R. Johnson, James F. Spriggs II, Sangick Jeon and Paul J. Wahlbeck. 2007. “Network Analysis and the Law: Measuring the Legal Importa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Political Analysis* 15(3): 324-346.
- Freeman, Linton C. 2004.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Science*. Vancouver, BC Canada: Empirical Press.
- Friedmann, J. 1986.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1): 69-83.
- Gaddis, John Lewis. 2004.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uld, Roger V. 2003. “Uses of Network Tools in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41-269.
- Grewal, David S. 2003. “Network Power and Globalization,”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7(2), pp.89-98.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uerrieri, Paolo. 2000.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integration, and corporate strategies in the East Asian electronics industry.” Michael Borrus,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CH 2.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Gunaratna, Rohan. 2002. *Inside Al Qaeda: Global Network of Terro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6.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3-27.
- Haggard, Stephen. 1997.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 Economy of Regionalism*, 20–4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nneman, Robert A. and Mark Riddle. 2001.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http://faculty.ucr.edu/~hanneman/>>.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 Hatch, Walter and Kozo Yamamura. 1996.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ggott, Richard. ed. 2002.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EA. 1998. *Caspian Oil and Gas*. Paris: IEA.
- Jervis, Robert. 1988. *System Effec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ssop, Bob, 2003.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 1997.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1–44.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ck, Margaret E. and C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2002.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insella, David. 2006. "The Black Market in Small Arms: Examining a Social Network."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7(1): 100–117.
- Knoke, David and James H. Kuklinski. 1982.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Krackhardt, David. 1994. "Graph Theoretical Dimensions of Informal Organizations." K. M. Carley and M. J. Prietula, eds. *Computational Organization Theor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rause, Keith. 1991. "Military Statecraft: Power and Influence in Soviet and American Arms Transfer Relationship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3): 313–336.
-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Annemarie Mol. eds. 2002.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 Leinhardt, Samuel, ed. 1977. *Social Networks: A Developing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 Macintyre, Andrew and Barry Naughton. 2005. "The Decline of a Japan-Led Model of the East Asian Economy." T.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CH 4.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cKay, Joseph. 2006. "State Failur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 pp.59–96
- Mahutga, Matthew C. 2006. "The Persistence of Structural Inequality? A Network

-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1965–2000." *Social Forces* 84(4): 1863–1889.
- Maniruzzaman, Talukder. 1992. "Arms Transfers, Military Coups, and Military Rule in Developing Sta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4): 733–755.
- Maoz, Zeev and Azar Gat. 2001. *War in a Changing World*.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rsden, Peter V. 1990. "Network Data and Measure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435–463.
- Martha Olcott, *International Gas in Central Asia: Turkmenistan, Iran, Russia and Afghanistan*,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28, Stanford Univ. May 2004.
- Matthew, Richard and George Shambaugh. 2005. "The Limits of Terrorism: A Network Perspectiv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7(4): 617–627.
- Mead, Walter Russel. 2004. *Power, Terror, Peace, and War: America's Grand Strategy in A World At Risk*. New York: Vintage Books.
- Medalia, Jonathan. 2004. "Nuclear Terrorism: A Brief Review of Threats and Response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22).
- Milgram, Stanley. 1967. "The Small-World Problem." *Psychology Today* 2: 60–67.
- Milner, Helen V. 1997. "Industries, Government, and the Creation of Regional Trading Bloc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77–10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ntgomery, Alexander. 2005. "Rising in Proliferation: How to Dismantle an Atomic Bomb Network." *International Security* 30(2): 153–187.
- Morgenthau, Hans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 Mosley, Layna. 2003. *Global Capitalism and National Govern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al, Zachary P. 2008. "The Duality of World Cities and Firms: Comparing Networks, Hierarchies, and Inequalities in the Global Economy." *Global Networks* 8(1): 94–115.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lcott, Martha. 2004. "International Gas in Central Asia: Turkmenistan, Iran, Russia and Afghanistan."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No.28.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 Ougaard, Morten, and Richard Higgott, eds. 2002. *Towards a Global Po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eng, Dajin. 2002. "Invisible Linkages: A Regional Perspective of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6(3): 423–447.
- Perl, Raphael. 2005. "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rend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September 8)
- Poulantzas, Nicos. 1978.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 Program o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cesp.stanford.edu/research>).
- Rice, Condoleezza. 2006. "Transformational Diplomacy: Remarks at Georgetown School of Foreign Service."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6/59306.htm>).

- Rosenau, James N. 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au, James N. 1995.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pp.13-43.
- Rosenau, James N. 2003.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Susanne Hoeber, and James Piscatori, eds. 1997. *Transnational Religion and Fading States*. Boulder: Westview Press.
- Sanjian, Gregory S. 1999. "Promoting Stability or Instability? Arms Transfers and Regional Rivalries, 1950-199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4): 641-670.
- Scott, John.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econd Edition. London; Thousands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Shaw, Martin, 2000. *Theory of the Global State: Globality as an Unfinishe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PRI. Various Years. *The Arms Transfers Databas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www.sipri.org/contents/armstrad/at\\_data.html](http://www.sipri.org/contents/armstrad/at_data.html)>.
- Slaughter, Anne-Marie, 2004.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lingen, Etel. 2005. "East Asian Region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Sources, Distinctiveness." T.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CH 2.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tasavage, David. 2007. "Cities, Constitutions, and Sovereign Borrowing in Europe, 1274-1785."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3): 489-525.
- Strange, Susan. 1988. *States and Markets*. London and New York: Pinter.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Peter J. 2005. "New Political Geographies: Global Civil Society and Global Governance through World City Networks." *Political Geography* 24(6): 703-730.
- U.S. Department of Defens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 Urry, John, 2003.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 Wallerstein, Immanuel.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eds. 1988. *Social Structures: The Network Approach*. New York: Pantheon Book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House. 200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hite, Harrison C., Scott A. Boorman, and Ronald L. Breiger. 1976. "Social Structure from Multiple Networks: I. Blockmodels of Roles and Posi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730-780.

-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 Телегина Е.А. ред.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Нефтяно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Москва: МГФ Знание, 2000).
- 강상중, 요시미순야. 2004. 『세계화의 원근법: 새로운 공공 공간을 찾아서』 서울: 이산출판사.
- 김상배. 2001.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pp.359-376.
- 김상배. 2005.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pp.93-120.
- 김상배. 2006.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 심포지엄 발표논문.
- 김세균 외. 2006.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하라심, 린다, 1997.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전예원.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박기련. 2007. "미국의 군사변환과 그것이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 21세기 미군의 범지구적 통제력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1): 145-164.
- 박삼욱 외. 2007.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기영. 2006. "지구화의 젠더적 성격과 한국."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서울. 12월.
- 신성호. 2006a. "21세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테러리즘: ‘척도없는 네트워크’ 테러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46(3): 31-53.
- 신성호. 2006b.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 보고서 13.
- 와츠, 던컨. 2004.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세종연구원.
- 월드롭, 미첼. 1995.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복잡성의 과학』 범양사.
- 이상현. 2006a.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 국가 건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상현. 2006b, “정보화시대의 군사변환,” 하영선, 김상배(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 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문화사.
- 이순형 외.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승훈·홍두승. 2007.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복 외. 2000.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열 외. 2007.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쟁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 임현진·정영철. 2006.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경수·서병철. 1997.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형권. 2004. "글로벌 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정책." 『한국동북아논총』 33: 191-194.
- 아퀼라, 존, 데이비드 론펠트 엮음. 한세희 옮김. 2001. 『네트워크 전쟁』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존슨, 스티븐. 2004. 『이머전스』 김영사.
- 클라크, 제임스. 1993. 『카오스: 현대 과학의 대혁명』 동문사.
- 하영선 편, 2006.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 2007.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pp.12-31.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홍석률. 2003.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II. 실행예산서: 항목별 연구비 명세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신 청 액	산 출 내 역
① 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급여	10,800천원	900천원 * 12개월
	· 연구보조원 수당	2,400천원	200천원 * 12개월
소 계		13,200천원	
② 연구 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15,000천원	300만원 * 5명
	· 연구회의비	2,000천원	(전문가 자문료, 세미나 개최 등) 1회 20만원 * 10회
	· 여비	3,882.24천원	미국 1인 - 캘리포니아 10일 왕복비행기요금(로스앤젤레스행) : 1209.6천원 {(일비\$30+ 숙박비\$145+ 식비\$81) * 0.1044} * 10일 = 267.264*10 = 2672.64 1,209.6 + 2,672.64 = 3,882.24천원
	· 집필료	2,000천원	연구책임자 1인
	· 유인물비(인쇄비, 수송비)	600천원	복사비용 등 1인당 100천원 = 6 * 100 = 600천원
	· 공공요금 등 잡비	210천원	
소 계		23,692.24천원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0원	
	· 문헌 및 재료구입	1,200천원	1인당 200천원 = 6 * 200천원
	· 장비사용료(임차료)	0원	
	· 연구기기비	0원	
소 계		1,200천원	
④ 간접비	· 간접연구경비 (총연구비의 5% 계상)	1904.612천원	38,092.24 * 0.05
소 계		1904.612천원	
합 계		39,996.852천원	38,092.24천원 + 1904.612천원

### Ⅲ. 연구참여자 연구활동 상황

#### 1. 연구업적(연구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

##### 가. 연구책임자 (성명: 김 상 배)

###### (1) 단행본

-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공편저 (을유문화사, 2006)
-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단독저서 (한울, 2007)
- 『인터넷권력의 해부』 편저 (한울, 2008)
-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공저 (한울, 2008)

###### (2) 논문

-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2008, 봄·여름)
- 정보혁명과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한국사회과학』 29, (2007), pp.27-60
-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2007, 봄·여름), pp. 190-233
- 글로벌 지식패권의 국내적 기원: 미국형 네트워크국가론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41(2), (2007, 여름), pp.245-269
- 네트워크 지식국가론: 정보화시대 국가변환의 개념화, 『국제정치논총』 46(3), (2006, 가을), pp.7-29
- 실리우드(Siliwood)의 세계정치: 정보화시대 문화제국과 그 국가전략적 함의, 『국가전략』 12(2), (2006, 여름), pp.5-34
-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봄·여름), pp.93-120
- 기술과 지식, 그리고 <sup>기</sup>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2004, 가을) pp.101-123
-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004, 가을) pp.255-276
-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2004. 3.) pp.167-94

###### (3) 기타

- 정보화와 세계정치, 한국정치학회(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제6권 (법문사, 2008) pp.329-64
- 디지털 한류의 매력정치: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의 시각, 손열(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서울: 지식마당, 2007), pp.329-364
- 정보화의 세계정치: 세계지식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IT전략, 하영선 · 남궁곤(편),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p.325-347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IT협력의 미래, 손열(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 · 구상 · 전략』 (서울: 지식마당, 2006), pp.271-311
- 동북아 IT협력과 한국의 전략, 김성철(편),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협력』 (성남: 세종연구소, 2005), pp.155-183
- 전자정부와 디지털정치, 정보통신정책연구원(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정보통신정책센터북 제3권, (서울: 법영사, 2005), pp.137-177
- 사이버세계에도 규제는 필요한 걸까, 김창호(편) 『행복 청마지: ‘즐거운’ 삶이 ‘좋은’ 삶일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5), pp.50-65
- 매력국가론 서설, 평화포럼21(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평화포럼21(편), (서울: 21세기평화재단 · 평화연구소, 2005), pp.6-25
- 이동통신과 정치변동, 이봉호 · 김동주(편), 『정보통신과 한국의 변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353-370
-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질서의 변동, 임혁백(외), 『21세기 한국정치의비전과 과제』 임혁백(외), (서울: 민음사, 2005), pp.331-368
- 문화산업과 정보문화,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2004), pp.149-160
- 소프트웨어산업과 국가의 역할: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홍성걸(편), 『국가와산업경쟁력: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정치경제학』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p.283-328

#### 나. 전임연구인력 (성명: 김 형 민)

##### (1) 논문

- Hyung Min Kim and Deokro Lee. 2008. "Determinants of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In Process.
- Gordon, Jonathan, Hyung Min Kim, and Timothy J. McKeown. 2007. "U.S. Federal Research & Development Funding: Strategic Trade Policy Tool, By-Product of Military Competition, or Politics as Usual."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4/3 (August), 412-438.
- Hallfors, Denise, Hyunsan Cho, Victoria Sanchez, Shereen Khatapoush, Hyung Min Kim, and Daniel Bauer. 2006. "Efficacy vs Effectiveness Trial Results of an Indicated "Model" Substance Abuse Program: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12 (December), 2254-2259.
- Hyung Min Kim and David L. Rousseau. 2005. "The Classical Liberals Were Half Right (or Half Wrong): New Tests of the Liberal Peace, 1960-88." Journal of Peace Research, 42/5 (September), 523-543.

## 다. 공동연구원 갑 (성명: 신 성 호)

### (1) 논문

-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in the Roh Moo-hyun Era” in Gilbert Rozman and In-Taek Hyun and Shin-wha Lee ed. South Korean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 (NewYork: Palgrave Macmillan, 2008)
-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the US-ROK Alliance” Korea’s Future Strategies Vol.5, Spring 2008
-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소고: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국가전략 제14권 1호 (2008년 3월)
- “현대 세계안보질서의 변환과 동아시아” 하영선, 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 "Is the Party for Six Over?" The National Interest online (2007년 2월 15일)
- "Call Them Five-Party Talks" The National Interest online (2006년 12월 27일)
- “정보혁명과 지구테러 네트워크” 하영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북핵과 강압외교” 하영선 편,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2006년 12월 4일)
- "Beware a North Korean Nuclear Bazaar" The National Interest online (2006년 11월 3일)
- “Japan-South Korea Relations: Slowly Lifting the Burden of History,” Yoichiro Sato and Satu Limaye ed. Japan in a Dynamic Asia: Coping with the New Security Challenges (New York: Lexington Books)
- “21세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테러리즘: ‘척도 없는 네트워크’ 테러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6집 3호 (2006년 10월)
- “동북아 패권경쟁하의 새로운 평화표준: 복지평화론의 가능성” 국제평화 제3권 1호 (2006년 6월)

### (2) 기타

- “South Korea's New Strategic Thinking: Out of America?” presented at San Diego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6년 3월)
- 국가안보 패널 리포트 13호, "PSI와 한반도" (2006년 1월 27일)
-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CONFERENCE BETWEEN TOKY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mographic Peace?: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n Arms Race" (November 2005)
- 국가안보패널 리포트 6호,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2005년 1월 26일)

## 라. 공동연구원 을 (성명: 신 범 식)

### (1) 단행본

-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편저, 서울: 한울, 2006.
- 『러시아의 선택: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 공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시베리아기행: 러시아 전문가 8인의 횡단보고』, 공저, 서울: 동아일보사, 2001.
- Yong-Chool Ha, Beom-Shik Shin,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r』 공저,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t US Army War College, Monograph, January 25, 2007).

(2) 논문

-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지역 원, 『국제·지역연구』, 14권 4호, 2005.
- “러시아-중국 안보·군사 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 『중소연구』, 30권 4호, 2006/2007.
- “남·북·러 삼각협력의 전망과 과제: 러시아 극동 및 북한 나진·선봉 개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 『국제문제연구』, 7권 3호, 2007년 가을.

마. 공동연구원 병 (성명: 이 승 주)

(1) 논문

- “지식과 지구 생산 네트워크: 동아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제29집 1호 (2008. 6), pp. 84-113.
- “The Presidency, Regionalism,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no. 6 (June 2008), pp. 861-882 (공저).
- “공적개발원조,”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학 핸드북 vol. 6 (서울: 법문사, 2008), pp. 91-119.
- “The Political Dynamics of Informal Networks in South Korea: The Case of Parachute Appointment,” The Pacific Review, vol. 21, no. 1 (March 2008), pp. 45-66 (공저).
- “생산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손열 엮음,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서울: 지식마당, 2007), pp. 323-361.
-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FTA,”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1호 (2007. 8), pp. 103-134.
- “Regional Ties and Discrimination: Political Change, Economic Crisis, and Job Displacements in Korea, 1997-1999,”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45, no. 1 (March 2007), pp. 63-96 (공저).
- “국회와 대외경제정책: FTA정책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2권 2호 (2006. 12), pp. 81-107.
- “한국의 경제개혁과 정부·기업간 비공식 네트워크의 변화,” 『21세기 정치학회보』, 16집 1호 (2006. 5), pp. 43-66 (공저).
- “Changing Dynamics i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Policy Ideas and Development Strategies,” Asian Survey, vol. 46, no. 2 (March/April 2006), pp. 195-214 (공저).
- “민주화와 부패: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5집 2호 (2005. 9), pp. 71-92 (공저).
- “Singapore Trade Bilateralism: A Two-Track Strategy,” in Vinod K. Aggarwal and Shujiro Urata, eds., Bilateral Trade Arrangements in the Asia-Pacific: Origins, Evolution, and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2005), pp. 184-205.

## (2) 기타

- East Asian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Strategies: The Role of Interests, Ideas, and Domestic Institution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entitled "The Evolu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cember 15, 2007 (공저).
- 일류국가의 통상전략. 중앙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7년 11월 9일
- FTA 논의를 통해 본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년 10월 27일.
- South Korea's Multi-Track FTA Strategy: Moving from Reactive to Proactive. Paper presented at the 2006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1 - September 1, 2006, Philadelphia, PA, USA (공저).
- 한·미 FTA의 정치경제: 정부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년 4월 21일.
- The Political Economy of Bilateral FTAs: A South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entitled "Northeast Asia's Economic and Security Regionalism: Old Constraints and New Prospects," March 3 - 4, 2006,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USA.
- The New Wave of FTAs in Northeast Asia: Common Interests and Different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entitled "Northeast Asia's New Institutional Architecture and Community-Building in a Post-9/11 World," December 11, 2005,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alifornia, USA.
- The Presidency, Regionalism, and Redistribu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2005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1 - 4, 2005, Washington, D.C., USA (공저).

## 바. 공동연구원 정 (성명: 정 연 정)

### (1) 단행본

- 『부시 재집권과 미국분열: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저 (오름출판사, 2005)
- 『정보화와 국가전략』 단독저서 (푸른길, 2006)
- 『한국의 선거V: 16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공저 (오름출판사, 2006)
- 『제 4회 지방선거 현장 리포트』 공저 (푸른길, 2007)
- 『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 공저 (범우사, 2007)
- 『미국의 전자투표』 공저 (배재대출판부, 2007)

### (2) 논문

- 전자투표 도입의 정치사회적 쟁점과 발전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2005) pp. 219-248
- 미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5) pp. 283-301
- 공공부문 업무 프로세스 관리(BPM)의 적용에 관한 연구: 기능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의 전환, 『정보화 정책』 (2006) pp. 80-99
- 사이버 커뮤니티,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사례를 통해서 본 인터넷 영향력 분석, 『국가전략』 (2006) pp. 29-62

- 지방행정혁신 주체의 특성과 혁신성과의 관계연구: 충남북 28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위자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2006) pp. 87-111
-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2007) pp. 23-52
-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치집단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2008) pp. 103-132

## 2. 통일학 지원 이력

연도	구분 (단독/공동/연 구소)	연구과제명	연구비 (단위: 천원)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2005.11- 2007.7	서울대 국제문제 연구소	동아시아 다층적 네트워크의 통일학	27,000	공동연구원 (김상배)
2005 -2006	통일연구소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화해 프로세스연구: 미중의 화해사례		공동연구원 (신성호)
2008	통일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공동연구원 (신성호)